

# 휘닉스파크 골프하우스

## Phoenix Park Public Golf House

이필훈 / (주)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Phil-Hoon

### 건축철학부재의 이유

누구나 한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마다 머릿속을 떠도는 상념이 있게 마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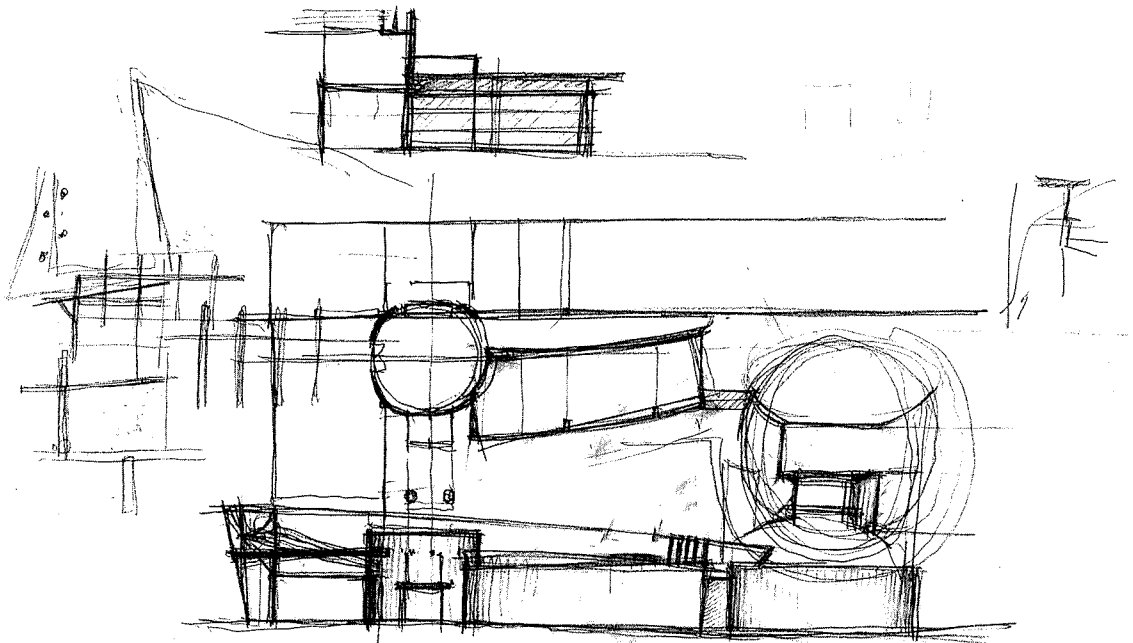
실제로 내에 있어 그 상념들은 항성을 갖지 못한다. 그 이유는 불확실성의 세계, 카오스, 신과학, 진리의 다원성,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새 정보에 대한 '기대기' 보다는 오히려 다분히 재즈적인 감성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고의 항성이 없기 때문에 나에겐 작가의 건축철학에 대한 질문이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다. 사고의 '항성 없음'은 비단 설계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된다. 지속된 건물보기와 독서를 통해 나름대로의 건축읽기가 가능한 이즈음에도 실제로 머릿속으로 좋아하는 작품과 가슴으로 좋아하는 작품이 다를 때가 많다. 손이 먼저인가, 생각이 먼저인가?

머리가 먼저인가 가슴이 먼저인가? 아는 만큼 느낄 수 있는가, 느끼는 만큼 알 수 있는가? 혹시 이들이 순서없이 섞여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내기 위해 다시 책을 찾는다.

#### 상념1 : 고정적인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그의 소설 '장미의 이름'을 통해 역사에서 사라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 희극론이 없어진 이유를 추리한다. 책장에 독을 문혀둠으로써 희극론을 보려 한 사제들을 독살한 원로 사서 호르헤수도사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한다.

- 이 책에서는 웃음이 예술로 과대평가되어 있고,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으로 과장되어 있다. 웃음은 사악한 인간을 악마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 이 책은 악마의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믿고



스케치

있다. 이 철학자(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타락한 상상력이 빚어 낸 아슬아슬한 농담을 합리화하는 날, 아슬아슬하던 농담이 진실로 믿어지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 중심의 개념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진리와 선은 비웃음의 대상이 아니다.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웃음은 악마다. 그리스도는 결코 웃지 않았다. 웃음은 권위를 비판하고 조롱하며 절대성을 파괴한다. 혹시 웃음이 신의 진리를 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신을 공격하는 날엔...? 조롱의 논리가 확신의 논리를 대신하고, 꾸준히 쌓아올린 구원의 이야기가 귀하고 존경스런 내용을 파괴하고 뒤집는 이야기로 대체된다면...

- 현존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1권에서 다루고 있는 비극이 오랫동안 귀족적, 이성적, 아폴론적 정전(Canon)으로 인정되어 왔다면, 부재하는 '시학' 제2권에서 다루고 있는 희극 곧 웃음은 민중적, 비이성적, 디오니소스적 장르로서 열등한 존재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었다. 비극으로만 대변되는 절대적이고 성스러운 진리, 귀족문화, 지배 이데올로기의 수호자가 장님 호르헤다. 에코는 그의 정신적 눈멀음을 상징하기 위해 호르헤를 장님으로 설정했을 것이다. 요한 계시록의 일곱 번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독이 발라진 금서의 책장을 찢어 먹는 호르헤

- 일곱 천둥이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계시록 10장 4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11절)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신념이 신의 뜻을 이루는 절대적 진리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살인의 원인을 파헤친 윌리엄 수사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상징으로 보

임)는 호르헤에게 소리지른다.

- 악마란 영혼의 교만, 미소를 모르는 신앙, 의혹의 여지가 없는 진리... 그게 바로 악마다. 얕이란 알아야 하는 것이나 알 수 있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었던 것, 알아서는 안되는 것까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진리의 서책과 허위의 서책의 평가름, 금서의 지정, 금기를 깨는 사람에 대한 정죄는 유사한 방식으로 어디든 존재한다. 시대를 꿰뚫는 진리가 없다는 주장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만이 절대 진리라는 편협함이 문제이다. 진리는 상대적일 수도 있고, 항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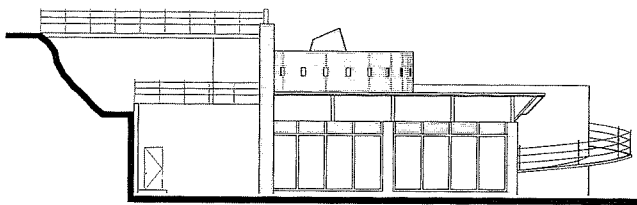
나의 삶은 호르헤의 편에 서 있는가, 윌리엄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건축은 호르헤의 절대진리 위에 있는가, 윌리엄의 상대진리 위에 있는가?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명은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웃도록, 진리가 웃도록 만드는 데 있고 유일한 진리는 진리에 대한 광적인 정열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을 배우는데 있다는 윌리엄수사의 입을 빌린 에코의 주장은 다분히 재즈적인 내 사고에 위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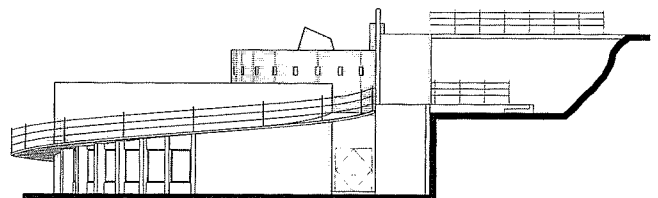
## 상념2 . 건축은 건축이다.

사실 프로젝트를 대할 때마다 부딪치는, 항성이 있는 상념이 한가지 있기는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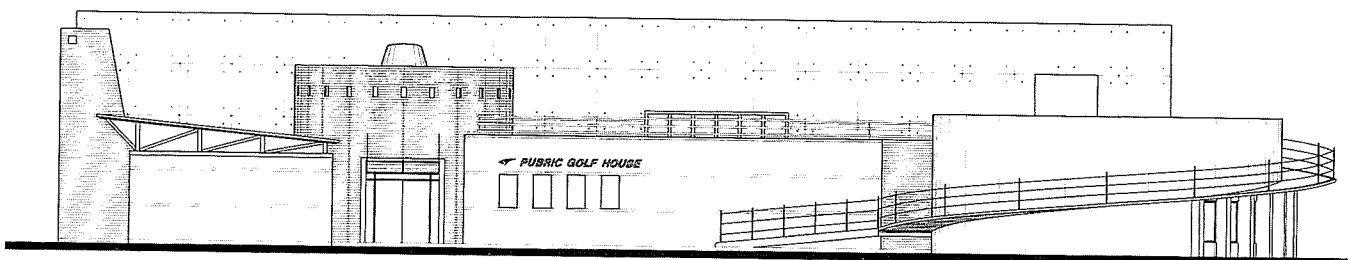
바로 건축의 예술성에 대한 의문, 이에 따른 건축가의 자세에 대한 상념이다. 물론 차원높은 생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유치한, 먹고살기 위해 나름대로의 도피구를 마련하기 위한 잡념일 경우도 있다. 가끔씩 건축 밖에서 건축을 바라보



좌측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삶을 내 위주로만 보지 않으려는 노력과 동일하다. 건축은 예술중 어느 위치에 있고, 그것으로 먹고사는 건축가는 어떤 자세로 건축에 임해야 하는가? 오래 전 지적 교만을 위해 읽었던 철학 서적들을 다시 찾는 이유는 건축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해서이다.

- 예술에 관한 고전적 논의는 헤겔에 이르러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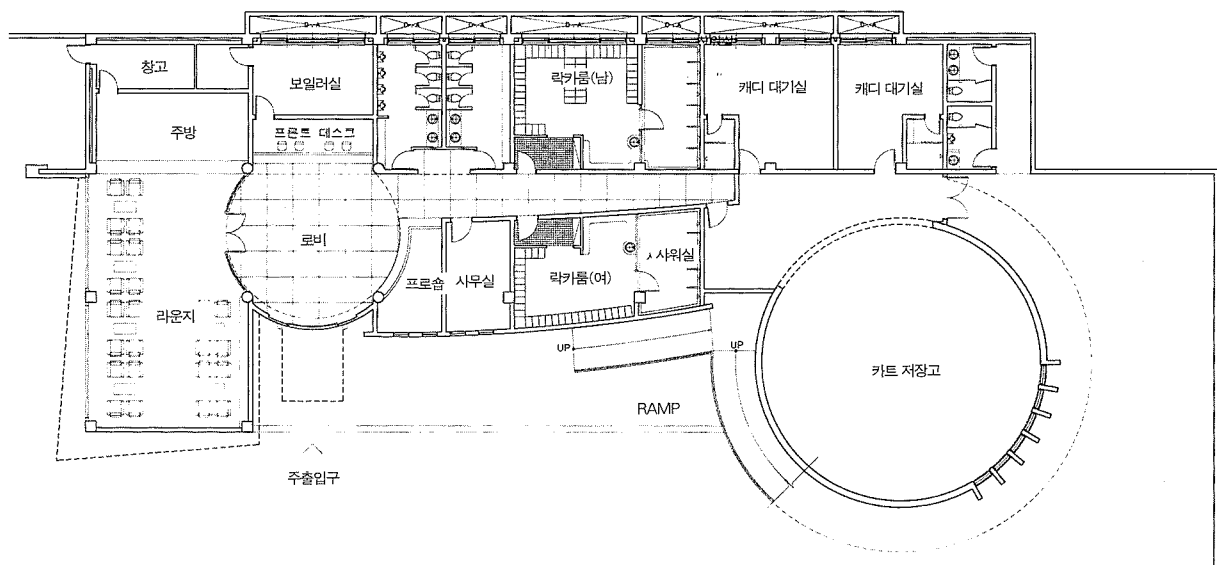
그는 예술을 절대적 진리를 드러내는 매체로 보았다. 즉 이념이 예술 속에서 감각적 형태로 드러난 게 곧 '미'라고 보았다. 진정한 미란 곧 예술미다. 물론 예술 밖에도 미는 있다. 가령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그러나 헤겔이 보기에 자연은 이념의 그림자일 뿐 아직 주관성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의 아름다움은 완전한 게 못된다. 예술은 자연미의 결함을 제거해 완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형상(Gestalt)속에서 이념이 빛날 때, 헤겔은 이를 '이상'이라 했다. - 지독한 인간중심주의 -

헤겔은 이념이 감각적 형상과 관련을 맺는 양상에 따라 예술의 발전을 다시 세 단계로 나눈다. 상징예술, 고전예술, 낭만예술이 그것이다. 먼저 상징예술은 이념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물질적 매체에 압도당할 때 발생한다. 고대 동방과 이집트 조각 등이 바로 이 시기에 속한다. 영혼은 아직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명을 부여 넣을 정도로 성숙치 못했다. 내용과 형식이 통일을 이루지 못해 예술은 뭔가 '송고'한 느낌을 준다.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이념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어렵것이 암시만 할 뿐이다. 때문에 예술은 수수께끼 같은 성격을 띄고 일종의 상징이 되어버린다. 이념이 성숙하면 상징에

술은 종말을 고하고 고전예술이 시작된다. 이제 이념은 충분히 구체적으로 되어, 감각적 형태 속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 시기는 구체적으로 그리스 시대를 뜻한다.

헤겔은 이상적 아름다움이 그리스 조각에서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믿었다. 정신은 더욱 성장해서 물질적 매체를 압도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념은 너무 자라서 형상과 조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없게 된다. 이념은 감각적 매체 속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표상'으로 표현되기 시작함으로써 낭만주의가 탄생한다. 여기서의 낭만주의는 특정한 예술사조로서의 낭만주의가 아닌, 중세부터의 모든 예술사조를 가리킨다. 건축은 어디에 포함될까?

- 건축은 대표적 상징예술로 분류된다. 조각은 고전적 예술, 시와 음악, 회화는 낭만적 예술의 범주에 포함된다. 실제로 고대 동방의 예술은 주로 건축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희랍의 예술은 조각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회화와 음악과 시는 근대에 이르러 뚜렷한 발전을 보여주었다. 상징적 예술형식인 건축은 물질에 압도당해 있어, 정신적 표현의 여지가 많지 않다. 고전적 예술형식인 조각의 경우엔 물질적 형태와 정신적 표현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다. 하지만 낭만적 예술형식에 이르면, 서서히 물질을 포기하고 정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회화는 조각의 3차원에 1차원을 사상함으로써 바깥세계에서 인간의 내면에 접근하고, 음악은 공간성을 사상하고 인간의 내면을 전달한다. 시에선 낱말의 '의미'가 표현을 담당한다. 결국 '감각'이 아니라 '의미'라는 표상이 표현수단이 된다. 낭만 예술에 이르러 이미 예술은 저물어가고 그 미래는 '종교'로 대체된다. 그리스 신들은 조각 속에 자신을 드러냈지



1층 평면도

만, 기독교의 신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다. 근대 종교는 감각이 아닌 표상을 통해 드러나고 이런 이유로 종교가 예술의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종교는 다시 철학이라는 개념적 사유에 자리를 내줘야 한다고 헤겔은 주장한다.

-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부엉이(철학)는 해질녘이 돼야 비로소 날기 시작한다던가.

헤겔의 예술이론의 많은 부분에 나름대로의 유치하고 소박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지만 건축이 물질에 압도당해 있어 정신적 표현의 여지가 많지 않아서 상징예술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것은 적절한 객관적 관찰로 느껴진다.

현대에 이르러 '물질'이 의미하는 바는 상징성을 띄며 원래의 의미보다 더 강렬한 다원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이론적 배경에 기대어 나는 건축이 작가정신을 발현하는 예술의 한 장르로 구분되는 것을 싫어한다. 건축은 단순히 작가의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 분야로 치부되기에는 너무 많은 인자를 내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건축가도 건축물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한 인자로 인식한다. 그래서 건축이 건축가 위에 떠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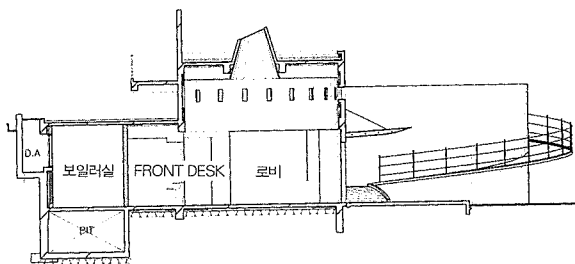
건축가의 건축적 의지 역시 건축을 이뤄내는 요소 중의 하나이기에 절대적이기보다는 관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 존재가 아닌, 상호의존적 존재라는 간단한 사실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이런 의미로 건축이 나로 인해, 내가 어깨에 힘줄로 인해 피해 받지 않고, 왜곡되어지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선 늘 논의의 변방에 있어야 하고 생각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조금 있으면 바뀔 생각을 괜히 끄집어내어 놓았다간 그것이 곧 건축철학으로 변질되고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되어 멋대로 날라 다닐지도 모르며 결국 그로 인해 건축이 조각으로, 미술로, 음악으로, 시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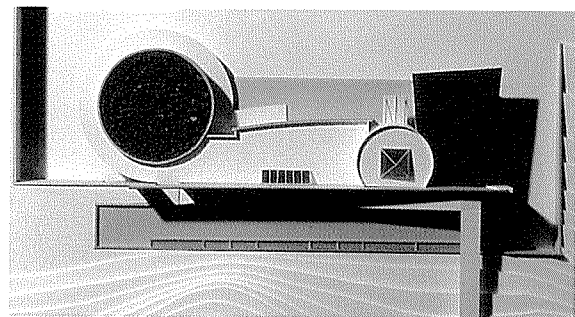
건축은 건축이다.

건축이 또 다른 의미의 표상이 되어 날라 다니길 원치 않기에 지어지지 않은 작품에 대한 소개는 도면과 설계개요로 족하다. 개요에 표현된 짧은 설계주제 역시 건물과 이반되어 있는 낭만적 표상이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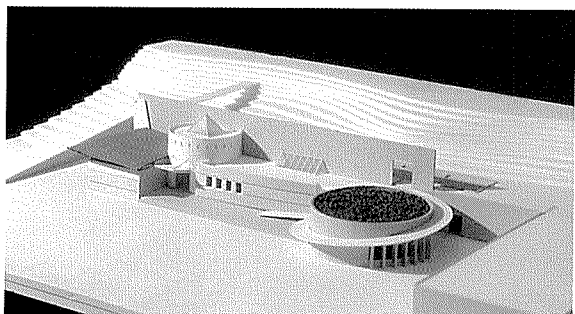
설계주제	침윤(浸潤)
표현방법	1. 각 Mass는 독립적이지 못하고 "Inter-Locking" 되어 있음. 2. 이들을 지지하는 벽 또한 동선해결을 위한 기능으로 침윤되어 있음. 3. 건물외부 램프의 기능이 첨가됨으로써 원래 입면의 독립성 거부. 4. Mass마다 다른 재료의 사용에 의한, 전체적 통일성 포기
건축개요	
위 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리리 산 268번지 일원
대지면적	189,710㎡(골프코스 : 70,719㎡)
코스규모	6홀, 22파(1,580m)
건축면적	769.85㎡
연 면 적	669.66㎡
외부 마감	노출 콘크리트, 외벽타일 마감, 목재패널 마감
규 모	지상 1층
설계담당	심재우, 박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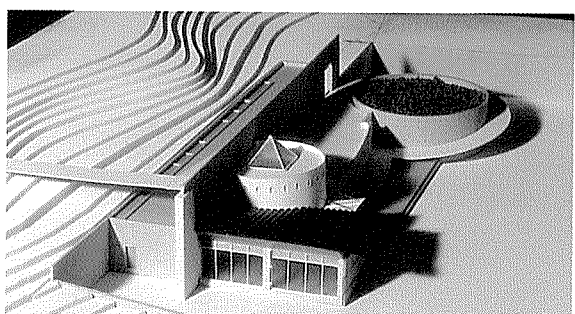
종단면도



모형2



모형1



모형3